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하박국의 하나님 성경: 하박국 3장 17-19절

Tag: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3:17-19)

(시기;바빌론이 발흥하던 때 B.C. 610년 경. (요시아 왕 시절))

하박국은 요시아 왕 시절의 선지자이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진 아주 짙막한 묵시서이다. 1장은 바벨론이 온 천하를 집어삼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방관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비록 유다가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더 악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저 포악한 자들에게 온 땅을 짓밟도록 하시다니 이건 너무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하박국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었다.

1:4 이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악행을 그저

보고만 있으시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1:13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의 고깃떼처럼 취급을 당하고 침략자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노략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를 물었다.

1:17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묵시를 보여 주셨다. 그리고 그 묵시를 서판에 기록해서 달려 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다.

2:2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는 마치 전령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바쁘게 말을 타고 가는 것을 상상케 한다. 이 구절 이후로 그가 전하는 소식은 경고의 메시지이다. 그 메시지는 잔악한 바벨론을 향한 메시지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 도구로 사용은 하시지만, 그가 너무 교만하였고, 잔인하였으므로 그도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였다.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적당한 자에게 정권을 주시지만, 그는 반드시 정의롭게 행해야 한다.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무시하고 자기가 마치 모든 권세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 하나님은 그도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는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다. 그 원칙에 따라서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칙에 대한 지혜를 배워야

한다. 그 원칙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다.

23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24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 하나님의 뜻은 정한 때가 있다.
 2. 종말이 속히 이른다. (때가 되면 신속하게 진행된다.)(왕조의 종말이든지, 정권의 종말이든지, 패권국의 종말이든지, 세상의 종말이든지 간에)
 3.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4. 혹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는 않는다.(그 시기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더디게 여겨지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변경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지체되지는 않는다.)
- 지혜는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3절 말씀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나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고 구원을 얻게 되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실패하게 된다.
5. 구원에 실패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생각한다. 교만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의가 따로 있다. 왜냐면 그는 자기 속에서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말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그는 하나님도,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는 자기 편식구들도 믿지 못한다. 그는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
 6.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믿고 기다린다.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믿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불법을 행치 않는다. 혹 어려운 일을 당하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결국 가장 핵심적인 지혜는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지혜를 깨닫고 난 다음의 신앙고백이다.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밭을 시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합3:17-19)

17절 말씀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을 말한다. 무화과 나무는 아예 잎사귀도 없다.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논밭에는 식물이 없다. 우리에는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다.

물론 오늘 우리는 산업화가 완성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 산업 기반 시설도 완비되었고, 치수나, 에너지 문제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라면 몇십년이든지 끄떡없이 잘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 과거처럼 극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혁신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고, 무엇보다도 사상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세계적인 이슈들이 한국에서도 불거지고 있다.

여전히 거짓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욕심장이들의 탐욕은 끝날줄 모르고 있다. 아모스 선지자가 잘 지적했듯이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이다.

11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람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암8:11)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자들, 풍요로운 세상을 등에 업고 허랑방탕하며 음란하고 폐역한 자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악하고 더러운 자들까지도 정치적 동지로 삼는 자들, 때를 지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만들어 내는 자들편에 서는 정치인들, 정의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테러를 돕는 자들이 많은 세상이 마치 바벨론이 온 땅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시대와 비슷하다. 히틀러 때도 그랬고, 일제의 강점기 때도 그랬으며, 공산주의가 활개를 치던 때도 그랬다. 모두들 정의의 이름으로 버젓이 악행을 일삼던 시대였다.

하박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어려울 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잃지 않았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비록 어려움이 닥쳐도 이겨내야 한다. 더위를 이겨내면 시원한 가을이 오듯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사상적인 어려움을 견디어 내는 건강함을 유지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건강하도록 힘써야 하고, 사상적으로 건강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래야 경건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우리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 끝까지 승리하자.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